



미 증시, 고용 부진 속 엔비디아 강세로 장 후반 반등

미국 증시 리뷰

4 일(화) 미국 증시는 4 월 구인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냉각 우려 재확산 등으로 장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시장금리 레벨 다운에 따른 엔비디아(+1.3%), MS(+0.6%) 등 주요 테크주 강세 효과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다우 +0.4%, S&P500 +0.2%, 나스닥 +0.2%). 업종별로는 부동산(+1.0%), 필수소비재(+0.9%), 기술(+0.4%) 등이 강세, 소재(-1.2%), 에너지(-1.0%), 금융(-0.4%)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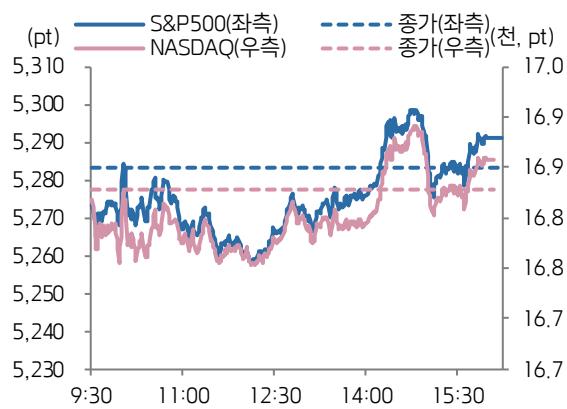
미국의 4 월 JOLTS 보고서 상 구인건수는 805.9 만건으로 전월(835.5 만건) 및 컨센(837.0 만건)을 하회하며, 3 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다만, 코로나 판데믹 이전의 평균값인 700 만건은 여전히 상회. 채용공고 비율은 4.8%로 전월(5.0%)에 비해 둔화됐으며, 퇴직자수는 537.2 만건으로 전월(533.0 만건)에 비해 증가.

옐런 재무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꽤나 하락했으나 높은 물가 부담을 해결하려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언급. 동시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놀라울정도로 양호하다고 평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경기 및 물가 전망 등이 변경되면 정책 금리도 변경할 사유가 된다고 언급. 또 장기채 금리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금리가 크게 상승할 시 국채 매입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 히미노 료조 BOJ 부총재는 금리 결정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아울러 시장이 BOJ 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채권시장에서 갑작스러운 가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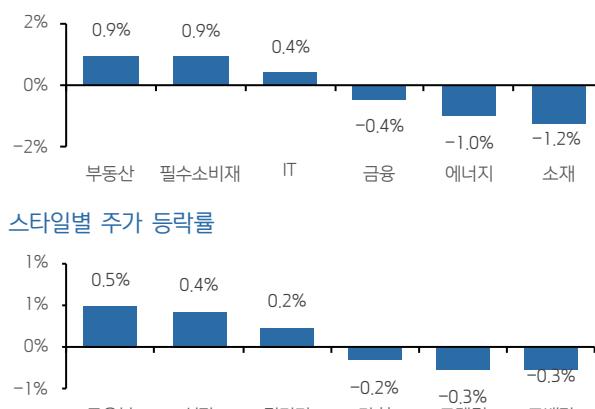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취임 2 주년 연설을 통해 “금투세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금투세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보면 많은 노력이 들어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면밀히 분석되는지, 게다가 (금투세) 논의가 됐을 때는 지난 정부 초반인데, 그 때와 지금 사이 코로나가 있었고 금리는 1%대에서 5%가 되는 등 바뀐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강조. 더 나아가, “인적분할이나 물적분할과 관련된 소액주주 보호 절차의 문제, 내부자 거래 공시의 문제 등 큰 틀에서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62.10	-0.76%	USD/KRW	1,376.07	+0.01%
코스피 200	362.52	-0.81%	달러 지수	104.16	+0.02%
코스닥	845.84	+0.13%	EUR/USD	1.09	+0%
코스닥 150	1,360.09	+1.33%	USD/CNH	7.25	-0.01%
S&P500	5,291.34	+0.15%	USD/JPY	154.86	-0.01%
NASDAQ	16,857.05	+0.17%	채권시장		
다우	38,711.29	+0.36%	국고채 3년	3.392	-4bp
VIX	13.16	+0.38%	국고채 10년	3.472	-6.5bp
러셀 2000	2,033.94	-1.25%	미국 국채 2년	4.770	-3.8bp
필라. 반도체	5,116.27	-0.7%	미국 국채 10년	4.326	-6.3bp
다우 운송	14,937.83	-0.91%	미국 국채 30년	4.474	-6.4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53.37	-1%	WTI	73.25	-1.31%
MSCI 전세계 지수	787.51	-0.16%	브렌트유	77.18	-1.51%
MSCI DM 지수	3,453.71	+0.01%	금	2347.4	-0.92%
MSCI EM 지수	1,051.96	-1.62%	은	29.62	-3.79%
MSCI 한국 ETF	62.99	-0.35%	구리	453.7	-2.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는 -0.35%, MSCI 신흥국 ETF는 -01.40%.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2.5 원 레벨을 형성
주요 체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요일 휴장 및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 경계심리의 장중 유입 가능성 영일만 유전 테마주들의 수급 쓸림 현상 지속 여부 젠크스팅의 HBM 테스트 관련 발언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5월 중순 매파적이었던 5월 FOMC 의사록 이후 연준이 9월에 1회 인하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현재는 9월, 12월 총 2회 인하 전망으로 옮겨간 상황. CME Fed Watch 상 1회 인하 확률이 43%, 2회 인하 확률이 28%였지만, 6월 5일 기준으로 1회 인하 확률은 31%, 2회 인하 확률은 41%로 뒤바뀐 모습. 이는 지난 금요일 이후 현재까지 1분기 GDP 실제치 및 2분기 전망치 하향 조정, 5월 ISM 제조업 PMI 부진 등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연준의 추가 인하에 베팅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와 동시에 고민인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 일단 지금은 “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이 경기를 우려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므로 증시에 호재(Bad news is good news)” 단계가 있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임. 하지만 향후 고용, 소매판매, ISM 지표 등 주요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지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연준이 이를 수습하고자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이라는 증시에 악재(Bad news is bad news)”로 국면이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임.

전자의 금리인하 성격은 “경기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인하”로 ‘95년, ‘99년, ‘19년의 인하와 유사하게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음. 반면, 후자의 금리인하 성격은 “경기 침체를 수습하기 위한 사후적 금리인하”로 ‘08년, ‘20년의 인하 때와 같이 증시에 다분히 악재가 될 소지가 있음. 조건이 변하면 전략이 변해야 하는 것처럼, 보험성 금리인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시장참여자들이 사후적 금리인하로 전제조건을 바꾼다면, 향후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불가피하게 선회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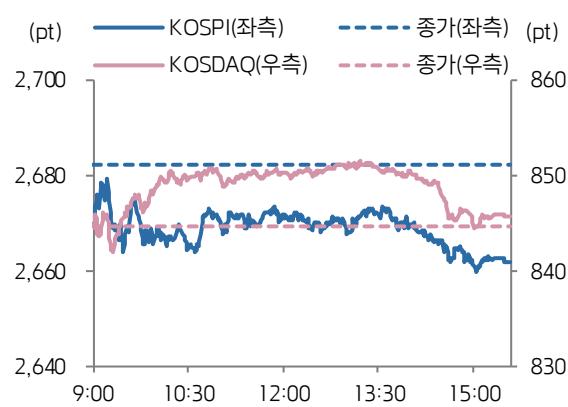
미 10년물 금리 4.3%대로 급락, 증시 변동성 확대, 4월 JOLTS 보고서 상 구인건수 감소(805.9 만건 vs 컨센 837 만건 등으로 이 같은 전제조건의 변화 우려가 생성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판단. 가령, 보험성 인하에서 사후적 인하로 시장 국면이 전환하려면, 대표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신규주문이 40pt 이하로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야 함(과거 침체 당시의 기준점은 40pt). 아니면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60pt 대를 하회하는 사태가 벌어져야 할 것(경기 냉각 우려가 본격화되는 기준점은 -60pt, 경기 침체 발생 기준점은 -80pt).

하지만 아직까지는 ISM 신규주문(현재 45.4pt)이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현재 -11.6pt) 상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또 한국이나 미국 모두 기업 이익은 (AI주 중심의 이익 쓸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이전 경기 냉각기나 침체기 때와는 달리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현재 여러 지표들이 혼재됨에 따라 경기, 연준의 통화정책, 더 나아가 증시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불투명성이 개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지만 베이스 경로는 “완만한 경기 둔화 + 보험성 금리인하 = 중립 이상의 증시 환경”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유전 테마주 급등세 지속, 2차전지주들의 기술적 매수세 유입에도, 미국 발 경기 침체 노이즈 출현, 직전일 국내 대형주들의 단기 급등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 상하방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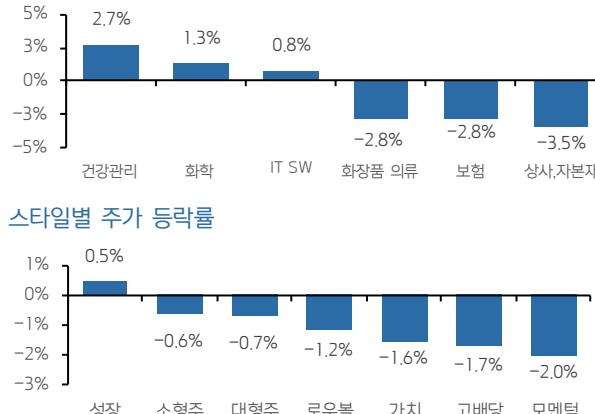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증시의 장 후반 반등 소식,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목요일 휴장 및 금요일 미국 5월 고용 결과를 둘러싼 대기 심리가 상승 탄력을 제한시킬 것으로 전망. 업종 관점에선 영일만 유전 기대감 등으로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일부 정유주들의 수급 쓸림 현상 및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경계해야 할 것. 또 전일 장 마감 후 전해진 젠스팅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당사에게 HBM 을 제공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장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내 수급 로테이션이 일어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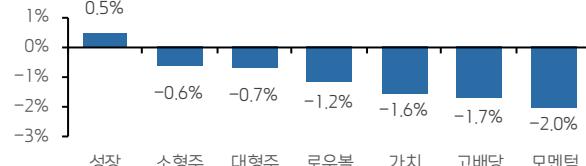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